

확보하려고 인간힘을 쓰고 있는 중이다. 물론 이런 자율성을 확보하려면 대학들이 스스로 모든 학사행정에 책임을 질 줄도 알아야 한다. 머지않은 장래에 이런저런 일에 자율성이 확보되어지는 날이 오면 정년퇴임도 정년퇴임할 교수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예상된다.

미국 대학의 경우 정년 연령이 오래 전에 철폐되었으나 대부분의 교수들은 65세의 나이에 이르러 교단을 떠나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한다는 것이다. 그곳에서는 연금이 60세를 넘어야 지급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교수가 이 나이에 이를 때까지는 교수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이다. 10~20%가량의 교수들은 60세의 나이에 이르면 이른바 조기정년(early retirement)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수들(60~70%)은 65세 전후에 정년퇴임을 하고, 10~20%의 아직도 건강하고 대형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교수들은 70세 또는 그 이상의 연령에 이르도록 교수생활을 지속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대학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가 하면 국민소득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고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80세로 연장된 지금 교수들 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와 회사원들의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때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강제규정을 가지고 있는 이웃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그 나라의 형편과 제도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정년 연령을 늘리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우수한 석학 교수가 더 오래 교수생활을 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65세의 나이에 이르렀다고 강제로 캠퍼스로부터 내모는 일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다.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이 정년 연령 문제를 당사자인 대학이 나서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대학인들은 물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기를 바란다. 교수들의 정년퇴임 연령을 65세로 규정한 것도 일종의 해묵은 행정규제라고 생각한다. 속히 철폐되어야 할 일종의 시대착오적 규제를 정부는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 묻고 싶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전산 시스템 통합을 건의한다

자연과학대학 생명공학부 명예교수 이 인 규

며칠 전 혈압과 전립선 검진을 위한 정기적인 진료 때문에 이른 아침 공복에 피를 뽑기 위하여 동송동의 병원으로 갔다. 진료 카드를 제시하고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 채혈을 당부했더니, 혈압 진료는 여기서 하지만, 전립선 진료는 분당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채혈을 하려면 분당 병원에서 발급하는 검사의뢰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접수처 간호사와 몇 마디 말이

오가는 중 언성을 높이며 전산 시스템이 달라 여기서 그냥 할 수 없다고 완강히 거절하였다.

내가 작년까지 죽전에 거주하고 있어서 혈압과 전립선 진료를 분당 병원에서 했기 때문에 진료 받기 2, 3일 전에 혈액 검사를 하곤 했지만, 서울로 이사 온 후 분당까지 가기 어려워 혈압 진료를 위한 주치의는 본원 의사로 바꾸었다. 마침 며칠 후 분당 병원에서 전립선 검진을 받게 예약되어서, 이를 위한 혈액 채취를 함께 하려고 부탁한 것이었다.

작년 봄에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분당병원에 들렀더니 본원에서 진료하는 경우라도 분당에서 피검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본원으로 이송된다는 이야기를 친절히 해주었으므로, 내 진료카드를 입력하면 이런 모든 정보가 당연히 다 나타나 어느 곳에서라도 혈액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내가 분당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할 때, 담당 간호사가 다음에는 검사의뢰서를 받아 와야 한다는 것을 알려 주었지만, 6개월에 한 번 하는 검진이기에 그 의뢰서 받는 일을 깜박 잊고 하지 않은 것이 내 잘못이었다. 이처럼 준비를 세밀히 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나의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분당까지 2번이나 가야 하는 번거로움은 두 병원의 전산 시스템을 연계하는 간단한(?) 조치만으로 얼마든지 없앨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오늘날처럼 정보 시스템이 발달한 사회에서 찾아오는 환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 정도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그 간호사가 이른 아침부터 몰려오는 환자들과 몇 시간 씨름하며 피곤해서 언성을 높이며 나에게 대들었다고 위안하지만(실제로 한 5분 후에 다른 간호사와 임무를 교대하였다), 돌아서는 내 기분은 매우 씁쓸하였다. 그래도 내가 35년이나 넘게 봉직한 대학의 가족 같은 직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접수처의 다른 간호사가 내 진료카드를 받아 분당 병원으로 전화를 몇 번 시도해서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한 혈액 채취를 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다음에는 검사 의뢰서를 꼭 가져오라고 당부하면서.